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韓·中·日 比較

玄 丞 桓*

목 차

1. 서 론
2. 韓·中·日 초혼형 비교
3. 韓·中·日 재혼형 비교
4. 결 론

1. 서 론

설화의 장르 분류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것은 B.Malinowsky가 Trobriand섬의 원주민들을 조사한 다음, 그들이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의 3분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이래 통용되고 있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민담은 오락을 위해서 이야기되고, 전설은 진실된 서술을 하면서 사회적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되는 것이며 신화는 단순히 진실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경외할 만하고 신성한 것으로 이야기된다고 한다.

*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講師

설화의 장르 분류에 대한 인식을 보면 1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종족으로는 뉴기니아의 동북부에 살고 있는 가이족을 들 수 있다. Ch. Keysser의 보고에 의하면 그들은 설화를 하나의 범주로 보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sage'라는 독일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2분법을 사용하고 있는 종족에는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있다. 그 한 예로 미국의 Platte 강 연안에 살고 있는 인디안의 한 종족인 P. awnee족은 자신들의 설화를 '진실담'(true story)과 '허구담'(false story)으로 나눈다고 한다. 또, Nigeria의 Yoruba족도 그들의 설화를 '史譚 itan'과 '민담 alo'으로 나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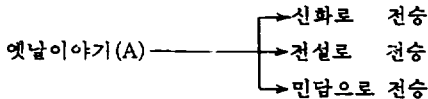
이런 일련의 보고로 볼 때 각 민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설화에 대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설화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설화연구가 시작되면서 민간에서 사용되던 분류체계는 고려치 않고, 서구의 3분법을 수용하여 구분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채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르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설화의 토착적 장르는 바로 옛날 이야기이며 제주에서는 '옛말'로 통한다. 이 옛말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은 신화요, 전설이요, 민담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신화, 전설, 민담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비교연구를 위한 한 방편에 지나지 않은 것 뿐이요, 민간의 분류의식으로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옛말) 하나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 이야기는 민간의 분류의식으로는 하나의 장르이지만, 연구자의 3분법으로 보면 신화일 수도 있고 전설 또는 민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 유형의 옛날 이야기도 지역에 따라 또는 문화의 차이에 따라 신화, 전설, 민담의 어느 한가지 또는 2가지, 3가지로 전승되게 마련이다. 3분법 상의 어느 장르로 전승되든 전승자의 분류 의식으로는 같은 옛날이야기인 것이다. 이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할 때의 옛날이야기 뿐만 아니라 고대의 어느 시기들 기준으로 할 때도 같은 옛날 이야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승되는 동일 유형

1) 김화경, 「한국설화의 토착적 장르에 대한 고찰」, 성기열·최인학 공편, 「한국·일본의 설화연구」(인하대학교출판부, 1987), p.54.

의 옛날 이야기가 현재 어느 장르로 전승되든 그것을 통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분법상의 신화, 전설, 민담의 어느 장르에서 출발했음을 상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전승되는 옛날 이야기의 원형이랄 수 있는 설화가 상정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를 원형설화라 명명하고 논의를 진행해가려 한다. 원형설화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정해 보자.

현재 A라는 한 유형의 서사적 스토리가 있다고 할 때 이 A가 신화나 전설, 또는 민담으로 전승된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현재 신화로 전승되는 설화가 있기 이전에는 옛날이야기 A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되고, 또한 현재 전설로 전승되는 설화가 있기 이전에는 이 또한 옛날이야기 A가 있었을 것이고, 현재 민담으로 전승되는 설화가 있을 때 이것 역시 신화나 전설처럼 옛날이야기 A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럴 경우 이 옛날이야기는 신화나 전설 또는 민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서구 3분법에서 말하는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되지 않고 옛날이야기라는 1분법으로 사용될 뿐이다.

실제로 예를 들어 논의해 보자.

a. 신화적 성격의 예 : 두 부부의 딸이 쫓겨난 후 가난한 남자를 만나 살다가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딸은 거지잔치를 열어 자신을 쫓아낸 부친을 만났는데 부친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죽어 조신이 되었다.

b. 전설적 성격의 예 : 두 부부의 딸이 쫓겨난 후 가난한 남자를 만나 살다가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그 남자는 그 덕분에 왕이 되고, 거지잔치를 열어 아내의 부친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c. 민담적 성격의 예 : 두 부부의 딸이 쫓겨난 후 가난한 남자를 만나 살다가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딸은 거지잔치를 열어 자신을 쫓아낸 부친을 만

나 행복하게 살았다.

이들 세 부류는 축출, 결혼, 금발견, 부녀상봉이라는 공통된 모티브를 공유하고 있다. a는 조신이 되었다는 신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이고, b는 왕이라는 존재를 설명해주는 전설이며 c는 행복담으로 전승된다고 할 때 이 세 설화는 같은 뿌리에서 나와 신화, 전설, 민담으로 장르의 轉化現狀을 일으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공통된 모티브를 갖는 각편의 뿌리에 해당하는 설화를 원형설화라 하고자 한다. 이 원형설화에 해당하는 장르명은 지역마다 다르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옛말이다. 이것은 신화, 전설, 민담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이 옛말의 분류를 신화, 전설, 昔話²⁾ 또는 신화, 전설, 民話³⁾로 나누고 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사용되는 昔話와 民話라는 용어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昔話는 순수한 자료를 가리키는 말로, 民話는 일반인에게 읽히기 위해 개작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구별하여 쓰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民話가 아닌 昔話 곧 '무카시바나시'(むかしばなし)로 통칭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옛날 이야기요, 중국의 故事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많은 유형의 설화들의 원초 형태는 바로 이 昔話에서 출발한 셈이 된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한, 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승되는 토착적 장르의 원형설화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 토착적 장르가 갖는 원형설화의 성격이 신화, 전설, 민담의 어느 부류에 속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필자는 이 원형설화의 성격이 <내복에 산다>형 설화에 관한 신화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에는 신화로서 삼공본풀이, 전설로는 서동설화, 민담으로는 <내복에 산다>형 설화로 전승되는 동일유형의 설화가 있다. 이 설화가 한국에만 존재

2) 大林太良, 「神話學入門」(東京:中央公論社, 1971), p.15.
日本民俗學會 編, 「民俗學辭典」(東京:日本民俗學會, 1960)
3) 松村武雄, 「神話學原論(上)」(東京:培風館, 1940), pp.34-35.

한다면 어느 한 장르가 원형이고 그것이 주변 장르에 영향을 주어 모티브를 주고 받으면서 신화, 전설, 민담으로 형성되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헌설화로 정착된 서동설화가 이 유형의 설화 연구의 중심이 되었고⁴⁾ 차츰 구전설화로 관심이 돌려지면서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의 상관관계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⁵⁾ 그러나 아직까지 이 관계에 대한 연구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국내에서 산전되는 민간설화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원형설화가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이나에 따라 논의의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국의 자료와의 대비는 성기열이 일본의 자료와 비교를 함으로써 연구의 폭을 넓혔을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옛말이라 할 수 있는 원형설화를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에 있는 설화들과 비교를 통하여 원형설화의 성격을 구명하고, 설화의 전파경로를 추정해 보려 한다.

한국에서 이 유형의 설화 연구는 최운식⁶⁾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으며 김대숙⁷⁾에 의해 유형적 연구가 거의 완성되었다. 그러나 김대숙의 연구도 설화 속에 나타나는 인물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내복에 산다>형 설화들 1) 내복에 산다 유형 2) 복진며느리 1 유형 3) 복진며느리 2 유형으로 나뉘 같은 성격의 설화임에도 불구하고 세분화함으로써 설화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시야를 넓혀 주변 민족들의 설화와 대비 검토해봄으로써 한국설화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기초작업으로 한·중·일에 분포하

4) 서동설화의 주인공을 실제 무왕으로 -신채호, 소창진평, 양주동, 조운제, 김사엽, 김동욱, 경주동, 이능우, 구자균, 조지훈, 김기동, 정병욱, 김준영 등의 경우- 보거나, 동성왕으로 -이병도의 경우- 보거나, 무녕왕으로 -사제동의 경우- 보거나, 원효로 -김선기의 경우- 보는 등 다양하지만, 대체로 배경설화를 주인공과 관련시켜 해석하려 했다.

5) 서동설화 자체가 미복사창전과 관련된 것 -송재주의 경우- 이거나, 불교적인 설화 -김중우의 경우-, 또는 서민들의 꿈을 모두 성취시켜 주는 요원한 이야기 -사제동의 경우-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6) 최운식,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 『한국민속학 6』(한국민속학회, 1973)

7) 김대숙, 「여인발복설화의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고 있는 <내복에 산다>형 설화를 분석 대비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일본에서는 炭燒長者譚이라 하여 <내복에 산다>형 설화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關敬吾⁸⁾는 이들 설화를 炭燒長者 初婚型, 炭燒長者 再婚型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명칭으로의 분류 근거는 주인공이 숫구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한국의 서동설화나 삼공본풀이처럼 주인공이 숫구이총각이 아닌 마통이로 나타나는 경우의 설화는 芋掘長者譚型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같은 유형 분류는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하여 중국에서 조사된 자료도 이 분류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⁹⁾

<내복에 산다> 설화가 하나는 딸이 부친에게서 쫓겨나 숫구이와 결혼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부친의 의도대로 혼인하여 살던 중 남편이 아내가 맘에 안 든다고 쫓아내자 숫구이와 결혼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므로 전자를 초혼형, 후자를 재혼형이라 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이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한·중·일에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는 이들 설화의 초혼형과 재혼형의 논의 결과는 한국의 구전설화의 성격을 드러내 주고 이는 문헌설화의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한·중·일 초혼형 비교

1) 한국의 초혼형

한국에서는 <내복에 산다>라는 유형의 설화가 민간설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 권2 무왕조에 실린 서동설화가 곧 내복에 산다형 설화를 모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화로 불려지는 제주도의 삼공본풀이 역시 내복에 산다형 설화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설화에서는 쫓겨난 셋째딸과 혼인하는 상대가 숫구이총각으

8) 關敬吾, 『日本昔話集成』(東京:角川書店, 1958(昭和 28년))

9) 伊藤清司, 『昔話傳説の系譜』(第一書房, 1991), pp.161-201.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韓·中·日 比較

로 나타남에 비하여 서동설화나 삼공본풀이에서는 마통이로 나타남이 다를 뿐이다. 쫓겨난 셋째딸이 자신의 복으로 산다고 하기에 과연 그러는가를 나타내는 상대역으로는 마통이든 숫구이총각이든 복의 유무를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가난한 총각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따라서 숫구이든 마통이든 가난한 총각이라는 의미에서 신화로 불려지는 삼공본풀이와 문헌설화인 무왕설화 그리고 민간설화인 내복에 산다형 설화가 같은 유형의 설화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의 선후 관계는 어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전되는 설화 즉 삼공본풀이와 내복에 산다형 설화와의 관계를 먼저 구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가장 잘 짜여졌다고 보이는 삼공본풀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모티브별로 나누어 간략히 하고, 내복에 산다형 민간설화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서로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려 한다.

먼저 초혼형의 주요 내용과 그 모티브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내 용 | 모 티 브 |
|--|--|
| 1. 누구의 덕에 사느냐고 묻는 아버지의 말에 셋째딸은 제복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하다. | 부너 복확인 문답 축 출 결 혼 금 발 건 부너상봉 |
| 2. 내복에 산다고 한 셋째딸이 집에서 쫓겨나다. | |
| 3. 산중의 오막살이에서 숫구이(또는 마통이) 총각을 만나다. | |
| 4. 숫구이의 숫구덩이에서 砂金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다. | |
| 5. 셋째딸이 거지잔치를 열어 부너상봉하다. | |

한국에서 수집된 자료 중에서 초혼형 설화를 추출하면 제주도의 삼공본풀이를 비롯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22편이 실려 있고 그 외로 단행본 및 설화자료집에 다수가 보인다. 여기서는 우선 제주도의 삼공본풀이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우선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¹⁰⁾를 대상으로 화소분포표를 만들면 다음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구비문학 대계 별책부록(1) 유형분류집」에 의하면 '잘되고 못되기'라는 항목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숫구이

과 같다.

| 지역 | 화소 | 부녀문답 | 추 출 | 결 혼 | 금발견 부자 | 부녀상봉 |
|----|--------|------|-----|-----|--------|------|
| 경남 | 하 동 진교 | 0 | 0 | 0 | 0 | 0 |
| | 거 창 남상 | 0 | 0 | 0 | 0 | 0 |
| | 진 양 대곡 | 0 | 0 | 0 | 0 | 0 |
| 경북 | 예 천 보문 | 0 | 0 | 0 | 0 | 0 |
| | 성 산 고아 | 0 | 0 | 0 | 0 | 0 |
| | 봉 화 소천 | 0 | 0 | 0 | 0 | 0 |
| 전남 | 보 성 조성 | 0 | 0 | 0 | 0 | 0 |
| | 화 순 북면 | 0 | 0 | 0 | 0 | 0 |
| | 화 순 화순 | 0 | 0 | 0 | 0 | 0 |
| | 진 도 군내 | 0 | 0 | 0 | 0 | 0 |
| 충남 | 정 읍 태인 | 0 | 0 | 0 | 0 | 0 |
| | 공 주 유구 | 0 | 0 | 0 | 0 | x |
| | 공 주 의당 | 0 | 0 | 0 | 0 | 0 |
| 강원 | 부 여 부여 | 0 | 0 | 0 | 0 | 0 |
| | 영 월 영월 | 0 | 0 | 0 | 0 | 0 |
| | 횡 성 공근 | 0 | 0 | 0 | 0 | x |
| 경기 | 강 릉 홍제 | 0 | 0 | 0 | 0 | 0 |
| | 용 인 이동 | 0 | 0 | 0 | 0 | 0 |
| 경기 | 남양주 이금 | 0 | 0 | 0 | 0 | 0 |
| 경기 | 남양주 진접 | 0 | 0 | 0 | 0 | 0 |
| 경기 | 남양주 진접 | 0 | 0 | 0 | 0 | 0 |
| 경기 | 양 평 단월 | 0 | 0 | 0 | 0 | 0 |

위 표에서 보면 <내복에 산다>형 실화는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광포설화임을 알 수 있다. 충청북도가 도표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채록되었

로 등장하므로 '숫구이총각의 생금장'(백제 무왕형)이라는 제목으로 66편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초혼형에 해당하는 것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다.”¹¹⁾

이북의 자료는 다양하지 않으나 임석재가 펴낸 자료¹²⁾에 의하면 북쪽에서도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설화는 한 지역에서 전승되는 단순한 후대의 민담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기로부터 꾸준히 전파되며 전승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한국에서 전승되는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은 내복에 산다고 하여 쫓겨나서, 가난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후에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자 거지잔치를 열어 자신을 쫓아낸 아버지를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다만 삼공본풀이에서는 맹인이 된 아버지를 위하여 거지잔치를 열고 부친과 상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전소설 심청전에 나타나는 부녀상봉 삽화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민간설화에서는 부친이 딸을 쫓아낸 후 몰락하여 거지가 되지만 맹인이 되었다는 요소는 전혀 안보인다. 또한 쫓겨난 딸이 부자가 되고, 거지가 되어 동냥하러 다니던 부친과 해후할 뿐 이로 인해 맹인독명 같은 신비로운 요소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삼공본풀이에서 보이는 딸을 쫓아낸 부모가 맹인이 되고 딸과의 해후로 인해 개안한다는 삽화는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원래 모티브들이 아닌 듯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승되는 초혼형의 기본 모티브는 다음과 같이 된다.

1. 부녀문답
2. 제3녀(막내딸) 축출

11) 성기열, 「한일설화 비교연구의 일례」, 『고전문학연구』 제1집(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p.40.
12) 임석재, 「한국구전설화(황해도편)」(임석재 전집3, 평민사, 1988), pp.265-267.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강원도편)」(임석재 전집4, 평민사, 1989), pp.193-194.
임석재, 「한국구전설화(경기도편)」(임석재 전집5, 평민사, 1989), pp.171-172.

3. 솥구이와 결혼
4. 금발견
5. 부녀상봉

2) 중국의 초혼형

중국에서도 한국의 내북에 산다형 설화의 초혼형과 같은 유형의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南詔野史」, 「滇繫」 등에 의해 「鹿角莊」의 지명유래전설로 잘 알려져 있는 설화인데, 中國西南地方의 壯族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자인 부친이 딸 7자매에게 '혜택받은 삶은 누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인가'라 묻는다. 언니들이 부친이라 답하는 중에 막내만은 인간의 福, 運의 유무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노하여 그 딸을 죽이려고 한다. 모친이 남몰래 말과 銀子를 준다. 막내는 말에 타서 짐을 도망쳐 나와 가난한 남자가 사는 굴에 겨우 도착하여 자원하여 억지로 아내가 된다. 여자는 남편에게 온자를 건네주어 쌀을 사러 보낸다. 마을까지 오니 큰 개가 짖으며 달려들므로 남자는 銀子를 던져 쫓는다. 그리고 던진 온자를 찾고 있으려니 주위 일대에 온자가 있었다. 부부는 그것을 모아 부자가 된다.

한편 막내가 떠난 후 부친은 영락하여 거지가 되고, 딸 집인줄 모른 채 그 집 문 입구에 선다. 딸은 아버지라는 걸 알고 주방으로 불러들여 후히 대접한다. 얼마 안 있어 아버지는 죽이려 했던 딸이라는 걸 알고 부끄러워 부엌 속에 들어가 죽는다. 딸은 부친을 龍神으로 하여 모셨다.¹³⁾

이 외에도 이와같은 초혼형의 것으로 전승되는 예를 들면

湖北省의 三姑娘¹⁴⁾

13) 文山長族事務委員會, 「獻龍」, 自治州文化局文學藝術會聯合會編, 「民間故事集」1輯(文山長族苗族自治州民族事務委員會, 1982), p.109-110.

14) 熊翰亭, 「三姑娘」, 湖北省 沔陽縣文化館編, 「沔陽文藝」1981年6期(沔陽縣文化館, 1981), p.1.

湖南省의 竈神故事(甲)¹⁵⁾

廣東省의 乞食婿¹⁶⁾

雲南省의 什么最寶貴¹⁷⁾

등이 있다. 이들 초혼형의 공통된 내용은 거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고관 또는 큰 부자에게 딸 셋이 있다. 부친이 잘 사는 것은 누구덕인가 라고 묻는다.
2. 두 자매는 "아버님의 은혜입니다."고 대답하는데 막내만은 부친이 기대 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쫓겨난다.
3. 막내는 부모의 집을 떠나 우연히 만난 거지 혹은 싸리베기, 숯구이의 아내가 된다.
4. 부부가 황금 혹은 은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다.
5. 딸을 쫓아낸 부친은 零落한다. 또는 그것을 부끄러워 하여 죽는다.

이들 모티브별로 간단히 나눠보면

1. 부녀문답
2. 딸 축출
3. 숯구이와 결혼
4. 부금
5. 금발견
6. 부친영락
7. 부친 대접
8. 부친죽음. 竈神

15) 凌純聲·芮逸夫, 「竈神故事(甲)」, 「湘西苗族調查報告」(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47), pp.257-259.

16) 香坂順一·竹村猛, 「廣東の民話」(竹井書房, 1944), pp.1-6.

17) 雲南大學中文系少數民族語言文學教研室, 「什么取寶貴」, 「雲南民間文學資料」〈油印本〉 21輯(不明), pp.52-54.

〈초혼형〉은 그 결말부의 차이에 의해, a와 b 두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타입은 위에서 약속한 것처럼, 처음에 권위가 있고, 혹은 부유했던 부친이 나중에 영락하고, 또는 불행한 생애를 마감한다는 내용이다. 즉 비극적 결말이다. 이에 대하여 b타입은 예를 들면

江蘇省의 命運의 故事(二)¹⁸⁾

台灣省의 水蛙記¹⁹⁾

雲南省의 金橋銀路²⁰⁾

등과 같이 부친의 욕을 듣고 가출하게 된 막내딸이 짜리베는 남자나 혹은 그 외의 가난한 남자와 부부가 된 후, 우연히 금은을 손에 넣어 부자가 되고, 그래서 부친에게 효양을 다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앞의 유형이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는 데 비하여 이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전승이다. 따라서 한국의 초혼형은 비극적으로 끝을 맺지않고, 부친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으므로 초혼형 b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아마 이 b타입은 a타입에서의 파생형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설화 내용이 신의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라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신으로 모셔졌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형태가 원형이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형태는 그에 대한 파생형으로 보이는 것이다.

3) 일본의 초혼형

일본의 초혼형의 내용은 이미 성기열²¹⁾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한국에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펴낸 바 있지만 일본도 이와같이 일

18) 林蘭, 「命運의 故事(二)」, 『董仙賣雷』(東方文化書局復刻, 1971), pp.72-77.

19) 陳國定, 「水蛙記」, 『台灣趣味民間故事』3輯(1971), pp.43-53.

20) 楊秉札, 「金橋銀路」, 『山茶』(1981年 4期), pp.48-51, pp.87.

21) 성기열, 앞의 책, pp.39-56.

본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설화를 한자리에 모았는데 그것은 日本昔話通觀²²⁾이다. 그 외로 日本昔話集成²³⁾과 日本昔話大成²⁴⁾이 關敬吾에 의해 이루어져 있어 설화연구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關敬吾가 日本昔話集成에서 제시한 炭燒長者 初婚型의 내용을 보면

1. 귀인의 추한 딸이 숫구이의 아내가 되라는 꿈을 꾀다.
2. 가난한 숫구이를 찾아가서 아내가 된다.
3. 남편은 아내가 준 小判²⁵⁾을 가지고 쌀을 사러 가는 도중 못에 떠 있는 오리(원앙), 학에게 小判을 던지고 돌아온다.
4. 아내는 小判임을 가르쳐주자 숫구이는 못에서 소판(砂金)을 발견하고 부자가 된다.²⁶⁾

이들 더 간단히 하면

1. 제시
2. 숫구이와 결혼
3. 부금
4. 금발견

일본 초혼형설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크게 4개의 모티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것과 비교했을 때 서두와 결말에 있어 차이가 드러난다.

22) 稻田浩一·小澤俊夫의 책임편집하에 전역의 설화들 집대성했으며 28권에는 모티브 인덱스를 수록함으로써 설화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든 대작이다.

23) 關敬吾, 앞의 책.

24) 關敬吾, 「日本昔話大成」(角川書店, 1981(昭和 56年))

25) 小判은 天正(1573-1592) 시대로부터 江戸시대에 걸쳐 만든 타원형의 금화를 말하는데 금이라는 속성 때문에 금을 던지는 대신에 小判을 던지는 것으로 변이된 것이다.

26) 關敬吾, 앞의 책, p.393.

한국과 중국에서는 쫓겨나는 계기가 내복에 산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너 자신의 복대로 살아보라’고 한다. 이것은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들어 있다. 일본에서는 인연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있는 딸을 보고 부친이 점을 친 결과 숫구이 아내가 되라는 계시(점괘)가 있어 그 계시대로 여자가 숫구이를 찾아 나선다. 각편에 따라서는 부친이 직접 딸을 데리고 숫구이 집으로 찾아가 딸을 건네주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부친의 힘을 구하지 않고 여자 스스로 가출하여 숫구이를 찾는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딸이 집을 나서는 데 있어서 부친이 직접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의 예²⁷⁾에서는 부친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거나 미미하다. 결말에서도 쫓겨난 딸이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일 뿐 지지잔치를 열어 부친을 만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부친의 역할이 소멸되고 딸 자신의 복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에서는 축출의 계기가 누구 복에 사는가라는 부친의 물음에 부친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복에 산다고 한 것이 부녀 갈등의 원인이 되어 쫓겨나게 된다. 결말에서는 쫓겨난 딸이 숫구이를 만나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후 부친을 찾기 위해 지지잔치를 열든가, 혹은 딸을 쫓아낸 후부터 집안이 몰락하여 거지가 된 부친이 동냥하러 다니다가 딸을 만난다. 어느 경우든 딸의 복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 결과를 부친에게 주지시켜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복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가출의 동기가 숫구이의 아내가 되라는 신의 계시 때문에 신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여자가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였기에 꿈에 신이 나타나 배필을 정해주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세의 운명은 신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는 관념이 부과되어 축출이 아닌 가출로 신의 계시를 따르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의 초혼형에서는 현세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딸 자신의 복

27) 伊藤清司, 앞의 책, p.168.

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인지를 물어봄으로써 사건이 발단되고 있다. 그에 대해 자신의 복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축출되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행복한 결말에 대한 시련이다. 그러나 일본의 예는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불운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신의 계시를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숫구이를 만나 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미리 예상된 것이 아니다. 숫구이가 남편이라는 꿈에서의 계시를 따르기 위해 찾아나서 숫구이와 결혼하는 것이 금발견을 위한 전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금발견은 자신의 복이라기보다는 우연히 일어난 결과다. 한국, 중국의 경우처럼 내복에 산다는 정의에 증거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말에 가서 부친을 만나기 위한 거지잔치를 열 필요도 없고 자신이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초혼형은 누구복에 사느냐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유래담의 성격을 벗어난다. 이는 중국에서 직수입되어 전승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초혼형이 일본에 건너가 전승되는 가운데 내복에 산다는 다시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현세의 삶대로 살게 운명지워졌다는 운명담의 성격이 서두의 변이현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형으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서두의 운명담적 성격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致富譚으로 남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에서 전승되는 초혼형의 대부분이 부자의 유래를 설명하거나 시조전설로 드러나는 예가 많은 것이며, 이것은 변이형임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²⁸⁾ 따라서 일본의 초혼형은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와는 다른 파생형으로 초혼형 C라 할만하다.

일본의 초혼형에서 또 다른 특징은 금발견의 계기에 있다. 한국에서는 숫구이에게 점심을 갖고 갔다가 숫굽은 터의 돌이 금덩이임을 발견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여자가 직접 금을 내놓고 남편으로 하여금 금의 가치를 인식하게

28) 『日本昔話通觀』 28 昔話 타입 인덱스에 의하면 남자의 이름은 四國, 九州에서는 「小五郎」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곳에서는 「藤太」, 「吉次」, 「喜藤次」, 「長次郎」 등으로 불리고 부자가 되며, 심지어는 住友家の 시조전설이 되는 것도 많다

꿈 한다. 長崎縣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풍후국의 탄소소오랑이라고 하는 가난한 남자가 있는 곳에 추하지만 복이 많은 여자가 小判을 갖고 와 아내가 된다. 어느날 쌀이 없어 소오랑에게 소판을 주어 시내까지 심부름을 시키지만 강에 뜬 새에게 던져버린다. 아내는 놀라 그것은 소판이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자 저런 것이라면 숯굽는 터에 있다고 하고 반신반의하는 아내를 데리고 간다. 숯굽는 터에는 숯찌꺼기가 금이 되어 있었다. 탄소는 큰 부자가 된다. 그래서 복있는 여자에게는 금이 있다고 한다.²⁹⁾

위의 예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한국과는 달리 여자가 직접 금(小判)을 내놓고 남편으로 하여금 금의 가치를 인식하게끔 한다. 아내가 준 소판을 갖고 먹을 것을 사러 가다가 오리에게 이것을 던지는 모티브는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일본 탄소장자담이 갖는 특징이다.³⁰⁾ 다만 중국의 초혼형의 경우 <여자는 남편에게 은자를 주어 쌀을 사러 보낸다. 마을까지 오니 큰 개가 짖으며 달려들므로 남자는 은을 던져 쫓는다. 그리고 던진 은을 찾고 있으려니 주위 전체에 은이 있었다.>라 하여 새에게 투금하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투금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새와 관련이 된 이 투금 모티브는 일본 초혼형의 특이한 점이다.

3. 한·중·일 재혼형 비교

1) 한국의 재혼형

한국의 재혼형의 모티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29) 關敬吾, 「日本昔話大成」(角川書店, 1981(昭和 56)), p.151.

30) 關敬吾, 「日本昔話集成」, p.393.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韓·中·日 比較

1. 한 남자가 태어난 아이 중 남자보다 여자가 잘 살 운세라는 산신의 대화를 듣다. 산신문답
2. 성장하자 두 남녀를 혼인시키다. 혼인
3. 남자는 여자가 맘에 안든다고 쫓아내다. 아내 축출
4. 여자는 숫구이를 만나 재혼하다. 숫구이와 재혼
5. 금을 발견하고 큰 부자가 되다. 금발견
6. 걸인잔치를 열어 부부상봉하다. 걸인잔치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나는 자료의 화소분포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 표는 대감이 관상을 보니 자신의 아들이 빌어먹을 상이라는 것을 알다.

§표는 전남편이 거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 변이형이다.〉

| 지역 \ 화소 | 산신 문답 | 班常 혼인 | 아내축출 | 숫구이와 재혼 | 금발견 | 걸인잔치 |
|-----------|-------|-------|------|---------|-----|------|
| 서울 도봉구 | 0 | 0 | 0 | 0 | 0 | x |
| 경남 거창 마리 | * | 0 | 0 | 0 | 0 | § |
| 경남 울주 언양 | 0 | 0 | 0 | 0 | 0 | § |
| 경남 의령 부림 | * | 0 | 0 | 0 | 0 | 0 |
| 경북 예천 예천 | * | 0 | 0 | 0 | 0 | x |
| 경북 대구 동구 | 0 | 0 | 0 | 0 | 0 | § |
| 경북 대구 수성 | * | 0 | 0 | 0 | 0 | 0 |
| 경북 영덕 달산1 | * | 0 | 0 | 0 | 0 | § |
| 경북 영덕 달산3 | 0 | 0 | 0 | 0 | 0 | 0 |
| 경북 월성 현곡 | 0 | 0 | 0 | 0 | 0 | 0 |
| 경북 월성 현곡 | 0 | 0 | 0 | 0 | 0 | 0 |

| 지역 | 화소 | 산신 문답 | 班常 혼인 | 아내축출 | 숫구이와 재혼 | 금발건 | 결인잔치 |
|----------|----|-------|-------|------|---------|-----|------|
| 전북 정읍 태인 | | 0 | 0 | 0 | 0 | 0 | \$ |
| 전북 군산 소룡 | * | 0 | 0 | 0 | 0 | 0 | 0 |
| 전북 옥구 개정 | * | 0 | 0 | 0 | 0 | 0 | 0 |
| 전북 남원 이백 | * | 0 | 0 | 0 | 0 | 0 | 0 |
| 전북 남원 금지 | * | 0 | 0 | 0 | 0 | 0 | 0 |
| 경기 여주 가남 | * | 0 | 0 | 0 | 0 | 0 | 0 |

위 도표의 결과로 보면 6개의 화소를 공유하고 있으나 서두와 결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지지잔치를 열어 전남편과의 상봉으로 결말을 맺는 반면 \$표에서 처럼 전남편이 거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또한 서두에서 *표가 나타내는 것처럼 2종류로의 파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태어나는 아이의 운명을 산신이 부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아버지가 관상을 잘 보므로 알 수 있다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다음에 설명하고 있듯이 전자에서 파생된 형태일 뿐 새로운 유형이라 보기 어렵다.

위의 모티브를 참고로 한국에서 전승되는 재혼형의 기본형태를 재구해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 양반이 출산을 하게 됐다. 부자로 살던 천인도 출산을 하게 됐다. 하루는 양반이 바깥일을 보러 갔다가 돌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神들의 얘기를 듣는다. 양반은 가난하기에 출산 후 삼신에게 대접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가난하게 살게 장래를 정해 놓고, 천인은 부유해서 출산 후 삼신을 잘 대접하므로 부자로 살게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반자식이 천인자식과 혼인하면 웬만함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한 신들의 얘기를 들은 양반은 천인의 딸과 혼인토록 한다. 신혼부부는 자식 낳고 살다가 남편은 부친이 죽자 신부의 신분이 천인임을 내세워 쫓아 버린다. 신부는 산골로 들어가다 老母가 있는 초막에서 머무르게 되어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韓·中·日 比較

숫장사 하는 그의 아들과 새 삶을 차린다. 하루는 남편이 일하는 숫굽는 터에 밭을 갖고 갔다가 구멍이에 있는 돌이 금덩이임을 발견한다. 남편에게 그 금덩이를 장에 갖고 가서 팔아오도록 한다. 金之金대로 주는 돈으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큰 부자가 된다.

전남편 생각이 난 그녀는 거지잔치들 열고 마지막 날 찾아온 남편을 만나 그를 따라가 행복하게 산다.

김대숙³¹⁾은 서두에 등장하는 인물의 차이를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2개의 유형으로 나눈다.

복진며느리 1형

- a. 옛날 서울에 사는 대감이 외아들을 두고 있다.
- b. 아버지는 관상을 보는 능력이 있는데 아들이 빌어먹을 상이다.
- c. 정승은 백정의 딸이지만 복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는다.
- d. 시부 사후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다.
- e. 집을 나온 며느리가 숫구이총각을 만난다.
- f. 여자가 금을 발견한다.
- g. 아내의 지시로 금을 처분하고 부부는 부자가 된다.
- h. 여자가 시부의 유언을 되새기며 거지잔치들 연다.
- i. 여인은 본남편을 만나 시가로 돌아가고 다시 부자가 된다.

복진 며느리 2형

- a. 시부가 삼신의 말을 엿듣고 아들이 복이 없고 백정의 딸이 큰 복이 있음을 안다.
- b. 장성하자 혼인을 시킨다.
- c. 부자가 된다.
- d. 여인이 시가에서 쫓겨난다.
- e. 집을 나온 며느리가 숫구이총각을 만난다.
- f. 여자가 금을 발견한다.
- g. 아내의 지시로 금을 처분하고 부부는 부자가 된다.

31) 김대숙, 앞의 책.

- h. 여자가 본남편을 생각하고 거지잔치를 연다.
- i. 여인은 본남편을 만나 시가로 돌아가고 다시 부자가 된다.

복진1 유형과 복진2 유형 사이의 공통요소를 추출하면

- 1. 복없는 양반 아들과 복있는 백정 딸이 결혼한다. 班常婚姻
 - 2. 여인이 시가에서 쫓겨난다. 家出
 - 3. 집을 나온 며느리가 숲구이총각을 만난다. 숲구이와 결혼
 - 4. 여자가 금을 발견한다. 금발견
 - 5. 아내의 지시로 금을 처분하고 부부는 부자가 된다.
 - 6. 여자가 거지잔치를 연다. 거지잔치
 - 7. 여자가 본 남편과 만나 시가로 돌아가고 다시 부자가 된다.
- (부부상봉)

복진1 유형과 복진2 유형의 차이는 서두에서 나타난다. 부친의 관상으로 인한 결과나, 삼신의 점지 결과나에 따라 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성격의 설화다. 설화의 내용을 이끌어 나갈 주인공의 탄생에 앞서 복진2 유형에서는 신이 등장하여 현세에서 살아갈 복과 운을 점지해 주고 있고 복진1 유형에서는 탄생은 어찌 되었든 태어난 아이의 부친인 대감이 관상을 잘 본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빌어먹을 형임을 알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없는 아이를 위해서 복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저변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외아들은 빌어먹게 운명지워진 것의 의미한다. 신이 정해준 운명을 아무도 모르는데 우연히 신들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는 모티브가 부친인 대감이 관상을 잘 본다는 것으로 변이되었다. 이것은 관상, 수상 등으로 운세를 판단하는 占筮의 영향인 듯이 보인다. 평범한 인간은 신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특수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추리해낼 수 있다는 사상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대감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서민들에 의해 제시된 인물로서, 대감이 라 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들보다 뛰어난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에 신을 대신할 인물로 대감을 선택했을 것이다.

따라서 선후관계를 추론해 본다면 신의 등장으로 복, 운이 점지되었다는 쪽이 앞선다고 하겠다. 양반아들과 천민딸이라는 신분상의 구분으로 보아 부자와 가난뱅이라는 대립관계가 신분제 사회로 되면서 빈부의 대립을 신분의 대립으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의 대립은 솥을 구워 살아가는 인물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던 시대의 가난뱅이와 부자와의 대립이다. 부호의 딸이 부모 때문이 아닌 자신의 복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인 솥구이와 결혼하여 살아보게 함으로써 셋째딸 자신의 운명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재혼형의 서두에서 하나는 산신의 등장으로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알게 되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인 대감의 관상능력에 의해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동일한 성격의 모티브라 한다면, 위의 김대숙의 분류를 종합할 때 한국의 재혼형은 다음과 같이 된다.

1. 산신문답(부친이 관상봄)
2. 양반과 천인의 혼인
3. 아내 축출
4. 솥구이와 결혼
5. 금발견
6. 절인잔치(부부상봉)

이 재혼형은 삼공본풀이로 불리는 초혼형과 달리 신화로 전승되는 예는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례도 존재하지 않고 민간설화에서도 신화적 성격을 찾기가 어렵다. 신화적 성격을 구태여 지적해 본다면 산신이 등장하여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정해 주고 부자로 살게 운명지워진 경우는 어떤 상황하에서라도 부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운명관장신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현세에서의 삶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라는 것이 재혼형의 주된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신화도 없고, 의례도 없이 민간에서 설화로 전승

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유형의 설화, 곧 산신에 의해 운명이 정해진다는 설화는 일본에 산신 문담형 설화가 전승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2) 중국의 재혼형

이 재혼형은 모두가 竈神유래담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내용을 보자.

山東省의 竈王爺의來歷³²⁾

浙江省의 夫婦比福成竈神³³⁾

台灣省의 竈君的來歷³⁴⁾

廣東省의 竈君³⁵⁾

등으로 전해지며 그 요지 다음과 같다.

1. 부자 부부가 있다. 남편은 아내가 맘에 들지 않아 인연을 끊는다.
2. 쫓겨난 여자는 우연히 만난 다른 가난한 남자와 재혼한다.
3. 이 부부가 큰 부자가 된다.
4. 전 남편은 영락하여 거지가 되고, 그것을 모르고, 인연을 끊은 전처의 집문에 선다.
5. 여자는 전남편임을 알고 가련히 생각하여 물래 금품을 주었는데 전남편은 모르고 그것을 버려버린다는지 친구에게 준다든지 한다.
6. 두번째로 구걸하러 간 때, 그것을 전처에게 지적받고 자신의 불운을 탄식하고, 또한 부끄러워 부엌에서, 또는 그 속에 들어가 죽는다.

32) 吳子信, 「竈王爺의來歷」, 「人間文學」 1957年 12期(????, 1957), pp.44-49.

33) 朱兩尊, 「夫婦比福成佛神」, 朱編, 「民間神話全集」(晉益書局, 1933), pp.144-147.

34) 數子匡, 「竈君的來歷」, 「台灣民間故事」(東方文化公應社, 1970), pp.38-44.

35) 雪白, 「竈君」, 「民俗」86-89期 合刊(????, 1929) pp.143-144.

이처럼 대부분이 龜神유래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신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신화임에 틀림없다. 초혼형에서도 龜神이 되었다³⁶⁾는 유래를 말하고 있었는데 재혼형의 경우는 전부가 龜神유래를 설명하고 있으니, 이 두가지 사실을 감안하면 초혼형이나 재혼형이나 龜神유래를 설명하는 신화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삼공본풀이가 신화로 창되는 점을 생각할 때 주목을 요하는 점이다. 민간설화 속에서 재혼형이 갖는 신화적 성격을 살펴보자. 먼저 호남성의 마오족이 전승하는 재혼형(龜神故事)의 내용을 보자.

큰 부호의 주인이 아이의 탄생 축하에 가난한 아내의 친정으로부터 축의가 적다고 하여 화를 내어 아내에게 말과 銀子를 주고 인연을 끊는다. 아내는 말을 타고 정처없이 가다가, 날이 저물어 산중의 허름한 집에 도착하여 거기에 사는 싸리베는 남자와 부부가 된다. 먹을 것이 없으므로 가졌던 온자를 그 남자에게 건네주고 쌀을 사오게 했는데 도중에 개에게 물리게 되어, 남자는 온자를 던지고 돌아온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싸리베기의 집 주위에 금은이 있음을 알고 들은 금새 유복하게 된다. 전남편은 얼마 후 거지가 되고, 큰 저택에서 걸인들에게 먹을 것을 베푼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행렬에 줄 서 있는데 온나쁘게도 언제나 베푸는 것을 얻어먹지 못한다. 그 집안 주인이 불쌍히 생각하여 주방에 청해들이자 전남편임을 발견하고 남기고 온 자식들의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몰래 온자를 넣은 떡 20개를 준다. 그런데 등에 진 떡이 무거운데다가 배가 고팠으므로 돌아오는 도중에 전남편은 온자가 든 것을 모르고 떡 18개를 반과 교환하여 먹고 집에 돌아와 나머지 떡을 구워먹었다. 그랬더니 속에서 온자가 나오므로 쫓아낸 아내의 정에 감사했다. 수일 후, 전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전처의 집을 방문한다. 아내는 떡에 넣은 온자 20개에 대하여 묻는다. 전남편은 자신의 불운을 한탄하고 부엌 속에 들어가 불 타 죽는다. 후에 조왕보살로서 모셔진다.³⁷⁾

이를 모티브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36) 凌純聲·芮逸夫, 앞의 책, pp.257-259.

37) 凌純聲·芮逸夫, 앞의 책, pp.259-265.

1. 아내축출
2. 가난뱅이와 재혼
3. 투금
4. 금발견 부자.
5. 전남편 영락
6. 거지잔치
7. 전남편 대결
8. 남편 죽어 龜神됨

이와 비슷한 것으로 라오스의 예도 있다.

부호가 아내와 이혼한다. 아내는 반지 하나만 건 채 입은 옷 그대로 집을 나서 가난한 짜리베기 남자의 집에 들어가 자원하여 억지로 아내가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반지를 주고 팔아오라 하는데 남편은 이런 물건은 짜리베는 산에 많이 있다 하므로 남편을 재촉하여 산에 간다. 부부는 자루 하나 가득 보석을 손에 넣어 큰 부자가 된다.

한편 전남편은 낭비벽 때문에 무일푼이 된다. 전처의 집이 굉장히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부부가 없는 틈을 타 도둑질하러 들어간다. 숲 속까지 와서 한숨 쉬어 보니 보석은 그냥 돌로 변해 있었다.

이러한 재혼형은 한국, 중국(마오족, 파이족, 야오족, 광동성, 안휘성), 버마(파라운족), 베트남, 티베트 등의 주변민족 사이에서 보이는 동아시아의 광포전승하는 설화다.³⁸⁾ 한국의 재혼형과 비교하면 서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과 결말부에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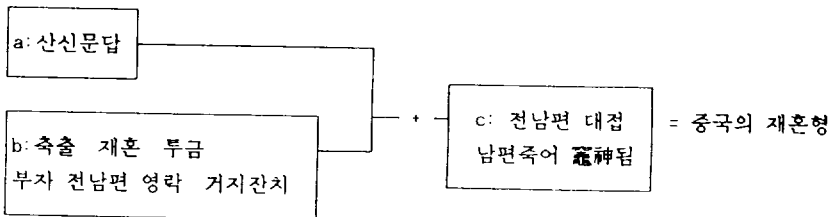
서두에서 축출의 계기를 보면 부호 아이의 탄생축하 때 아내의 친절으로부터 축의가 적다는 것이 이유가 되고 있는데 이는 곧 아내는 빈민의 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부호는 처음부터 부유했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렇게

38) 飯島吉晴, 『龜神と廟神』(東京:人文書院, 1986), p. 62.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韓·中·日 比較

볼 때 한국에서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어져서 양반의 아들은 빌어먹을 운명으로, 상민의 딸은 부자로 살 운명으로 정해 놓았다는 산신문담과 비교해 보면 부자와 빈자의 관계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다만 이러한 어렸을 적 상황이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생략되어 나타났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재혼형도 처음에는 운명담을 설명하는 설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겠다.

다음은 결말 부분이다. 한국의 초혼형에서는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 후 거지잔치를 열어 자신을 쫓아낸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재혼형에서는 자신을 쫓아낸 전남편을 만나고 있다. 이것은 축출의 상대가 부친이 아닌 남편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父女相逢이 夫婦相逢으로 변이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예에서 보면 이와는 다르다. 중국의 재혼형의 모티브는 모두 8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⑤ 전남편 영락, ⑥ 거지잔치, ⑦ 전남편 대접, ⑧ 남편 죽어 龜神됨>이라는 모티브를 전남편 삽화라 한다면 2개의 모티브인 ⑦ 전남편 대접, ⑧ 남편죽어 龜神됨이라는 모티브는 기존의 ⑤, ⑥설화에 덧붙여져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확대시키면서 龜神의 유래담으로 정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재혼형에서 부부상봉의 계기는 거지잔치이며 거지잔치를 여는 이유는 여자가 영락한 전남편을 만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의 재혼형의 ⑤ 전남편 영락, 거지잔치 모티브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재혼형은 <① 축출, ② 재혼, ③ 투금, ④ 부자, ⑤ 전남편영락, ⑥ 거지잔치>라는 한국의 재혼형과 같은 유형의 설화에 <⑦ 전남편 대접, ⑧ 남편 죽어 龜神됨>이라는 모티브가 덧붙여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는 한국에서 나타나는 재혼형의 서두이다. 이 산신문담 모티브를 제외하
나머지 b부분과 龜神상화에 해당하는 c부분이 중국의 재혼형임을 알게 한다.
앞에서 한국의 재혼형은 운명담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
비록 중국의 재혼형의 서두에 산신문담 모티브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등장인물
의 신분이 부자와 빈자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성격의 설화임을 알게 한다. 이
처럼 부자와 빈자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의 재혼형에서 나타나는 갈
등과 유사하다. 이것은 양반의 아들과 상민의 딸이라는 등장인물의 혼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삼신이 이들에게 점지해준 복의 유무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축출의 계기에서도 중국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 집안이 가난하여 축의금이 적
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도 역시 부자와 빈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재혼형 중 龜神상화를 제외한 부분은 한국의 재
혼형이 갖는 운명담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게한다.

그러면 후반부에 첨가된 龜神상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운명담
의 성격을 갖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죽어서 왜 龜神이 되었는가. 이는 龜神
의 성격을 파악하면 스스로 이해 된다. 龜神은 고래로 인간의 生死, 運, 不運
에 관계하는 신으로서 민간에서 신앙되어 왔다.³⁹⁾ 중국의 龜神전승에 의하면
12월 23일 밤이 되면 집안에 모시던 龜神이 하늘로 올라가 1년 간에 있었던
집안의 모든 일을 보고하고 정월 초하루에 돌아오므로 送龜祭를 지내고, 나쁜
일을 보고하지 못하게 엿을 그 神像의 입에 붙여놓는다고 한다.⁴⁰⁾ 이것은 龜
神의 성격이 福, 運을 관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복, 운을 관
장하는 신의 이야기가 집안의 복, 운을 관장하는 龜神의 이야기로 변화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재혼형은 龜神의 유래담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한국의 재혼형
처럼 운명담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후에 龜神신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복, 운
을 관장하는 운명담이 집안의 복, 운을 관장하는 운명담으로 변이된 것임을

39) 楊 堃, 「龜神考」中法漢學研究所編, 「漢學」1輯(1944), pp.107-167.

40) 永尾龍造, 「支那民俗誌」1卷(支那民俗誌刊行會, 1941), pp.7-8.

알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의 재혼형은 炭燒長者 재혼형 설화의 古型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한국의 재혼형에서 龍神과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의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3) 일본의 재혼형

일본의 경우는 초혼형, 재혼형 이외에 産神問答型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산신문답형 설화는 남녀의 福, 運은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의 재혼형을 논의하는 데는 이 산신문답형 설화를 배제할 수 없다. 먼저 이 두 설화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틀을 진행해 보자. 일본의 재혼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구 두 사람이 해변의 窰木⁴¹⁾을 베어 잠을 자고 있는데, 지나는 길에 들른 네리야 신이 窰木에게 오늘 밤 태어난 남자아이에게는 대나무 한 개의 복을, 여자에게는 소금 한 되의 복을 주었다고 말하고 간다.
2. 그것을 들은 한 사람이 태어난 남자아이를 여자아리와 부부되게 하면 집은 부유해진다고 하여 성장하자 결혼한다.
3. 남편이 아내가 지은 조밥을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인연을 끊는다. 아내는 창고에서 날아온 하얀 나방(蛾)의 뒤를 따라가 숫구이와 재혼한다.
4. 아내가 숫굽은 가마의 돌을 가져 보니, 돌은 모두 금이고, 부부는 부자가 된다.
5. 거지가 된 전남편이 전처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전처임을 알고 혀를 깨물어 죽는다.
6. 전처가 전남편을 장사지내니, 묘에서 풀이 나와, 담배의 기원이 된다.⁴²⁾

이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바다에서 떠 다니다가 조류에 의해 육지로 흘러와 떠 울려진 나무.

42) 『日本昔話通觀』28, p.296.

1. 산신문담
2. 남녀혼인
3. 아내추출
4. 숲구이와 재혼
5. 금발견
6. 전남편 죽음

다음에는 산신문담-남녀의 복, 운-의 내용을 보자.

1. 부자인 남자가 여행길에 올라 신사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나는 길에 들른 이웃의 신이 오늘 밤 태어난 빈자의 딸아이는 소금 한되의 운에, 부자의 아들은 청죽 3개의 운으로 태어났다고 그 신에게 말하고 간다.
2. 남자는 신이 말한 대로 아이가 태어나 있으므로 부자 아들과 빈자의 딸을 약혼시킨다.
3. 성인이 된 아들은 딸과 결혼하여 죽세공을 업으로 하는데 아내를 미워하여 쫓아낸다.
4. 여자는 재혼한다.
5. 여자는 부자가 된다.
6. 몰락한 전남편이 죽세공을 팔러 오자 아내는 음식물에 돈을 넣어 주지만 전남편은 그것을 모르고, 음식물을 거지에게 주어버린다.⁴³⁾

炭燒長者 재혼형과 구성이 거의 같다. 단지 이 유형은 男子의 운명에 중심이 두어지고, 주어진 운명을 면하려고 하는 시도도 결국 허무한 결과로 끝난다. 이에 대하여 炭燒長者 재혼형은 복, 운이 많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남자는 보좌역이 되고 있다. 발단의 산신문담은 해안의 畚木을 베고 잠을 자고 있으니 길가다가 들른 신이 畚木과 말하고 간다고(鹿兒島)도 한다.⁴⁴⁾

내용을 간단히 하면

43) 『日本昔話通觀』28, p.297.

44) 『日本昔話通觀』28, p.297.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韓·中·日 比較

1. 산신문담
2. 부자와 貧者의 혼인
3. 아내 축출
4. 여자 재혼
5. 부자됨
6. 전남편의 몰락

이 재혼형의 전승은 서일본으로 갈수록 풍부하다. 단지 오키나와에서는 한 결같이 3 이하 〈3. 아내 축출, 4. 여자 재혼, 5. 부자됨, 6. 전남편의 몰락〉을 말하고 〈1. 산신문담, 2. 부자와 천인의 혼인〉의 산신문담하는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일본 본토에서는 위와같은 유형의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온 지역 곧 남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오키나와에서는 태어난 아이가 산신의 문답대로 잘살고 못사는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훗날 누군가에 의해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된다는 삽화가 없고 바로 설화의 서두부터 부부로 등장한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이 남편의 마음에 안든다고 하여 아내를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오키나와의 재혼형의 서두는 중국의 것과 유사하다.

앞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중국의 炭燒長者 재혼형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부자인 부부가 있다. 남편은 아내가 맘에 들지 않아 인연을 끊는다.
2. 쫓겨난 여자는 우연히 만난 다른 가난한 남자와 재혼한다.
3. 이 부부가 큰 부자가 된다.
4. 전 남편은 영락하여 거지가 되고, 그것을 모르고, 인연을 끊은 전처의 집의 문에 선다.

호남성 마오족의 재혼형인 應神교사에서도 산신문담 삽화가 없이 바로 대부호인 남편이 아이의 탄생축하 때 아내의 친절으로부터 온 축의가 적다고 하여 맘에 안들었기 때문에 쫓아내고 있었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재혼형과 중국의

재혼형은 설화의 발단이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재혼형이 오끼나와로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재혼형은 결말부분이 남편이 죽어서 魍神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끼나와에서는 魍神이 되었다는 예가 안 보이고, 전남편이 죽어 거북이가 되었다는 거북유래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운명담의 성격을 나타내던 재혼형에 첨가된 魍神유래 삽화가 오끼나와에서는 전연 성격이 다른 거북의 유래담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아 전승 도중에 魍神의 성격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전승자들은 재혼형을 인간의 복, 운을 관장하는 운명담으로 관념하였는데, 이 관념이 魍神신앙과 결합하면서 가정의 복, 운을 관장하는 운명신으로 확대되어 魍神신앙으로 전승되었다. 그런데 오끼나와의 전승자들은 재혼형이 갖는 운명담적 성격에 관심을 두고 魍神신앙 자체는 배제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중국의 재혼형이 오끼나와에 전파될 때 그것은 운명담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 후에 魍神유래를 설명하는 모티브가 유입되었으나 오끼나와 전승자들은 魍神의 성격을 수용치 않고 魍神유래를 나타내는 모티브 즉 '죽어서 魍神이 되었다'는 거북의 유래로 변이시킨 것이라 여겨진다. 그 결과 어떤 전승자들에게는 결말이 중시되어 동물의 유래담으로 나타나고, 운명담의 성격을 중시하는 전승자들에게는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행운을 가져다 주는 아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때 오끼나와의 재혼형은 중국의 재혼형과 유사하며 여자로 인해 부자가 된다는 운명담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본토의 재혼형은 산신문담 삽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재혼형과 같은 제통입을 생각하게 한다. 일본의 재혼형은 <1.산신문담, 2.남녀혼인, 3.아내축출, 4.숫구이와 재혼, 5.금발견> + <6.전남편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전반부 5개의 모티브는 바로 한국의 재혼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티브이다. 일본에는 전남편 모티브가 한국과는 다르게 하나 더 덧붙여져 있는 셈인데, 이는 죽어서 어떤 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의 기원이 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오끼나와에서는 거북의 유래담인데 반하여 일본본토에서

는 담배의 유래담이다. 이것도 龜神과 관련된 유래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龜神유래담인 중국의 재혼형이 직수입된 것이라기보다는 龜神유래가 덧붙여 지기 이전의 중국의 재혼형, 다시말하면 古型이랄 수 있는 한국의 재혼형이 일본으로 전파되었음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나중에 유입된 龜神유래 모티브는 일본본토 전승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변이형인 담배의 유래를 설명하거나 住友의 始祖유래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일본의 재혼형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일본 본토에는 한국의 재혼형이 전파되고, 오키나와에는 중국의 재혼형이 전파된 셈이다. 龜神유래를 설명하는 모티브는 오키나와든 일본본토든 신화로서의 성격이 아닌 전설적인 요소로만 남아있다.

신화가 의례행위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龜神과 관련된 신화가 없고 일본에서는 龜神기원담이 있는데 炭燒長者譚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여기서의 논의는 유보한다.

다음은 산신문담형 설화의 검토다. 이는 위에서 살핀 바에 의하면 <1.산신문담, 2.부자와 빈자의 혼인, 3.아내 축출, 4.여자 재혼, 5.부자됨, 6.전남편의 몰락>으로 되어 있었다. 구성상으로 보면 일본의 炭燒長者 재혼형과 꼭 같고, 4와 5와 6의 모티브에서 달라진다. 재혼형에서는 숯구이라는 빈자와 재혼하여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되고 전남편은 죽어 담배의 기원이 되고 있으나 산신문담형에서 여자가 재혼하는 배우자는 빈자가 아니라 부자이다. 그러므로 재혼하는 즉시 여자도 부자가 되고 있다. 남자가 갖고 있지 않는 능력, 다시말하면 금이 소중한 것임을 아는 능력을 드러냄이 없이 바로 부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고 있다. 반면에 아내를 쫓아낸 전남편은 몰락한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음을 드러낸다. 재혼형에서는 전남편이 죽어 담배의 기원이 된다. 이 두 유형에서 일본의 재혼형의 성격을 살필 수 있다. 산신문담형은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으로 복많은 여자와 결혼할 때는 잘 살 수 있으나 그와 헤어지면 몰락하며 그러한 증거는 부자가 된 아내가 돈을 음식물에 넣어 주더라도 그것을 거지에게 주어버리게

되어 가난해진다는 것으로 증거대고 있다. 여자의 운명보다는 남자의 운명에 관심이 두어져 있다. 일본의 재혼형도 같은 운명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이와는 좀 다르다. 그것은 쫓겨난 여자에게 촛점이 두어져 있다. 따라서 부유하게 지내던 중 축출당하여 가난한 솥구이와 재혼을 하지만 부자로 살게 되었다는 산신의 계시대로 금발견이라는 새로운 계기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다. 곧 여자는 원래 복 있게 태어났으므로 어떤 상황하에서라도 부자로 살게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산신문담형 설화는 일본의 재혼형과 같은 제통의 설화로 보인다.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는 운명담의 성격을 가진 한국의 재혼형이 일본 본토로 유입되어 전승되면서 나타난 炭燒長者 재혼형의 변이형임을 알 수 있다. 재혼형의 경우는 일본 본토와 오겨나와에서 같이 전승되고 있으나 이 산신문담형 설화는 일본본토에만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오겨나와, 일본본토라는 관계에서 재혼형의 전파는 수궁할 수 있으나 똑같은 운명담의 성격이지만 산신문담형 설화의 전파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일본본토, 오겨나와라는 관계를 통해 볼 때 산신문담을 통한 운명담의 성격은 한국과 일본본토에만 전승되고 있어 재혼형이 한국에서 일본본토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龜神 신앙보다는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점에 관심을 둔 전승자들이 만들어 전승시킨 일본의 산신문담형 설화는 炭燒長者 재혼형의 변이형으로 다양한 형태가 보인다. 산신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남녀의 운' 이외에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부의 운', 정해진 나이가 되면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는 '물의 신 운' 등 여러가지의 변이형이 있는데 이들도 같이 산신문담형 설화⁴⁵⁾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산신문담형 설화 전승자들의 운명담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45) 이 유형의 설화로는 運定め〈男女の福分, 夫婦の因縁, 水の運, 木の神, 蛇に手斧, 子供の壽命, 壽命の取り替え〉들이 있다.

4. 결 론

이상의 논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중·일에는 <내복에 산다>형 설화의 초혼형이 공통된다. 신화라 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의 삼공본풀이와 중국 호남성의 龍神故事이다. 중국의 초혼형과 한국의 초혼형이 셋째딸 축출이라는 공통모티브를 갖고 있어 동일제통의 설화임을 알 수 있는데 신화적 성격으로 전승되는 도중에 신성 요소 및 의례가 사라지면서 한반도에는 중국의 초혼형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것과는 다른 변이형으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에는 결말이 비극 또는 회극으로 끝나는 a, b형이, 한국에는 회극의 b형이, 일본에는 변이형인 c형이 존재하게 되었다. 설화의 성격이 운명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회극보다는 비극으로 끝나는 형이 원형이라고 보여진다.

2. 초혼형이 신화적 요소를 회미하게 간직한 반면에 중국의 재혼형은 전승되는 자료 대부분이 龍神기원담이었다. 한국의 재혼형은 산신문담모티브를 지닌 운명담으로서의 성격이 드러나고,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재혼형, 산신문담형 설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오기나와에는 산신문담형 설화의 전승이 없고 재혼형은 중국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재혼형은 오기나와로 진출하고, 또 한줄기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본토로 전파되었다고 보아진다.

이상의 논의는 한, 중, 일에 분포하고 있는 내복에 산다형 설화를 비교검토하고 원형설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했다. 따라서 그 원형설화가 신화인지 아니면 민담적 요소를 지닌 민간설화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원형설화 요소가 들어있는 의례를 찾고 설화와 의례와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신화로 구전되고 있고, 문헌설화인 서동전설이 있고, 민간설화로 내복에 산다형 설화가 있으므로 서

로간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주변국에서 전승되는 설화, 의례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고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